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고전/5:51-58)

교황 “한반도 평화 지지” “남북대화 지속 중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방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당사국 사이의 대화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일 오전 교황청 파올로6세 홀의 별실에서 반 전 총장을 접견, 약 20분 동안 한반도 정세와 세계 평화,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대화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내 확고한 지지 입장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반 전 총장이 “최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의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하자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는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평소 즐겨 하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환경 문제가 인류의 시급한 과제를 강조했다.

2019 장학생 모집 나성영락교회

나성영락교회 장학위원회가 2019년 ‘영락장학생’을 모집한다.

영락장학 위원회는 매년 110~140명에게 15만~16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로 36년째이다. 영락 장학 프로그램은 고 김계용 목사 기념장학금(각 5,000달러), 안나미션그룹 장학금(각 3,000달러), 신학생 장학금(각 2,000달러), CYL 장학금(한부모자녀 학생), 일반 장학금, PK(목회자 자녀) 장학금이 있다.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4월19일(금) 오후 9시까지이다.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웹사이트 (scholarship.youngnakchurch.org)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의: (323) 227-1400
scholarship@youngnak.com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무력해 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의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일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여 나는 일만큼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외침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내 대신 먼저 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죽은 지 삼 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은 다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롭고 여유롭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2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에 힘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했고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케도냐에 가서 선교했고 에베소와 두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분부를 받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한 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3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사도 바울은 전에는 땅을 바라보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미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스테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

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행 7:56).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후 결산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전 4:4,5).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후 5:1,2,8).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땅을 바라보며 땅에 얽매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김명혁 목사-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